

유아의 기질과 자기조절능력에 따른 문제행동

정 혜 진(인하대학교 석사과정) · 이 완 정(인하대학교 교수)

본 연구의 목적은 성별, 연령에 따라 유아의 기질, 자기조절능력, 문제행동의 차이를 알아보고, 생물학적 요인인 기질과 환경적인 요인인 자기조절능력이 유아의 문제행동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규명해 봄으로써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에 대한 확인을 통해 부모와 교사가 유아의 발달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한다. 연구대상은 인천지역에 거주하는 만 3, 4, 5세 유아를 대상으로 총 232명의 유아의 어머니와 어린이집 담임교사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최종적으로 210명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유아의 기질과 자기조절능력은 어머니가, 유아의 문제행동은 담임교사가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유아의 기질척도는 천희영(1993)이 한국 유아의 기질 유형화를 위해 사용하였던 기질 평정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적응성, 활동성, 생리적 규칙성, 반응성의 4개의 하위요인과 총 2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척도는 이정란(2003)이 개발하여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자기점검, 자기통제로 구성되고, 자기점검은 자기평가와 자기결정, 자기통제는 행동억제와 정서성으로 구성된 총 3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유아의 문제행동 척도는 Behat과 Stringfield(1974)이 개발한 「The Preschool Behavior Questionnaire(PBQ)」를 서수경(1993)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공격성, 불안, 과행동과 산만 3개의 하위요인과 총 2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자료 분석방법은 SPSS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Cronbach's α 계수, 이원변량분석, 정준상관분석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에 따른 유아의 기질에 있어 적응성, 활동성에서 남아가 여아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반응성은 여아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에 따른 기질에서는 활동성에서 만 3세가 만 5세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둘째, 연령에 따른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 있어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기조절능력에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셋째, 성별에 따른 유아의 문제행동에 있어 남아가 여아보다 불안, 공격성, 과행동과 산만의 문제행동 모두가 높게 나타났고, 연령에 따른 문제행동에서는 불안, 과행동과 산만에서 만 3, 4세 집단이 만 5세보다 높게, 공격성에서 만 3, 5세 집단이 만 4세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문제행동 전체에서 만 3세가 만 4, 5세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넷째, 유아의 기질과 자기조절능력 및 문제행동간의 관계에서 자기조절능력의 변인 중 자기결정과 자기평가가 문제행동의 불안과 과행동과 산만을 잘 예측할 수 있었고, 행동억제가 공격성을 잘 예측하였다. 구체적으로 남아의 경우 자기조절능력의 자기평가와 자기결정 변인이 문제행동의 과행동과 산만변인을 잘 예측하였다. 여아의 경우 정서성, 자기결정, 자기평가 변인이 불안 변인을 잘 예측하였고, 자기결정, 정서성이 과행동과 산만의 변인을 잘 예측하였다. 만 4, 5세의 유아의 경우 자기결정, 자기평가의 변인이 불안과 과행동과 산만을 잘 예측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 문제행동은 남아가 여아보다 더 높으며, 연령이 증가 할수록 문제행동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이 유아의 문제행동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유아의 기질과 유아의 문제행동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부모와 교사는 유아의 연령과 성별을 고려하여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유아의 발달을 효과적으로 도와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